205억 들인 장보고기념관 작년 운영비 20억에 수익은 2600만원

혈세로 짓고…적자에 허덕
관광문화시설

전남 22개 시·군 실태

전망대·캠핑장 경쟁적 건립
사업성·타당성 검증은 허술
순천시 88억원 최대 적자
메타세콰이어길 담양만 흑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자한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문화시설들이 적자지만, 시·군은 무료 입장이나 저렴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몇몇 시설이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을 뿐 수익 창출을 위한 대책이나 시도 역시 거의 없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인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매년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미래재정 역시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22개 시·군은 마치 중독된 것처럼 관광·문화시설 짓기에 올인하고 있다. 전남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지만 사업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개관이나 개장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에 대한 추정도 하지 못할만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망대, 캠핑장, 전시관 등 우후죽순 생겨나=2006년 이후 22개 시·군은 경쟁적으로 관광문화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 인물, 자연 등 자원을 상징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이들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있지만,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은 시·군의 부담이었다. 2014년 개장한 장성 홍길동테마파크의 경우 314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군비가 176억원, 해남 공룡화석지도 사업비 501억4300만원 가운데 군비가 230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장성군과 해남군의 올해 세출 일반예산이 각각 3217억7000만원, 4346억197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5%와 5.3%의 비중이다. 인건비, 관리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한 가용예산 중 상당부분을 이들 시설에 쓴 것이다. 2006년 이후 순천시가 순천드라마촬영장 등 8개, 진도군과 여수시가 진도타워, 하멜전시관 등 각각 5개 시설을 개관·개장했다.

◇흑자는 메타세콰이어길 있는 담양이 유일=담양은 기존에 조성된 메타쉐콰이어길을 2012년부터 논란 끝에 3억원을 들여 유료화하면서 '대박'을 냈다. 입장료(성인 기준) 2000원씩을 받아 지난해 7억6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인건비 등으로 3억6000만원을 썼다. 4억원을 남긴 것이다. 메타세콰이어길 인근에 2014년 군비 27억원 등 54억원을 들여 입장이 무료인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했다. 지난해 1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썼지만, 전체적으로 2억5000만원 플러스다.

22개 시·군 가운데 2006년 이후 들어선 관광문화시설에 의한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순천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사업비 509억400만원 가운데 시비로 457억3300만원을 부담한 순천시는 지난해 운영비로 156억9839만8000원을 쓰고, 입장료 등은 73억9401만여원을 거뒀다. 마이너스 83억여원의 성적표다. 그 외에 뿌리깊은 나무박물관(-2억7073만여원),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1억5327만여원), 순천자연휴양림(-1억2807만여원) 등 5개 시설도 적자였다. 순천드라마촬영장(+1억5187만여원), 국민여가캠핑장(+43만여원) 등 2곳이 '플러스'였지만, 순천시는 지난해 이들 시설의 적자액 88억3000여만원을 부담해야했다.

10년간 정남진전망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정남진 편백숲우드랜드 등 5개 시설을 위해 628억2400여만원을 쓴 장흥군 역시 지난해 6억여원의 적자를 봤다.

◇수익 예상 번번이 빗나가…부담 갈수록 늘어=지난 2008년 개관한 완도 장보고기념관에는 기념관(159억원), 정보센터(10억원), 동상(36억원) 등 모두 205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시설물 관리에 10억원, 인건비 10억원(추정) 등 20억원이 들어갔지만, 수익은 고작 2670만원에 불과하다.

■ 전남 22개 시·군 2006년 이후 관광문화시설 운영 실태

시군	시설 수(가로안은 개관 연도)	사업비	2015년 운영비	2015년 운영수익	적자규모
목포	목포근대역사관(2009)	32억1600만원	7186만4000원	2825만9200원	-4360만4800원
여수	하멜전시관 (2012) 등 5개	252억4000만원	9749만8000원	없음	-9749만8000원
순천	순천드라마촬영장(2006) 순천만국가정원(2014) 등 8개 시설	905억9600만원	179억9062만9000원	91억5977만원	-88억3085만9000원
나주	백호문학관(2012년부터 직영)	-	1억2400만원	-	-1억2400만원
광양	구봉산전망대(2013) 등 2개	121억4600만원	1억2300만원	-	-1억2300만원
담양	메타세콰이어길(2012년 유료화) 등 3개	77억원	5억1000만원	7억6000만원	+2억5000만원
곡성	섬진강천문대(2007)	15억2100만원	8371만4000원	2702만7000원	-5668만7000원
구례	산수유문화관(2013) 등 3개	164억8400만원	1억2100만원	-	-1억2100만원
고흥	고흥우주천문과학관(2013) 등 3개	149억4000만원	2억1226만1000원	9391만9000원	-1억1834만2000원
보성	판소리성지(2013) 등 3개	132억7800만원	3억1729만2000원	9937만2000원	-2억1792만원
화순	해당시설 없다고 공개함	-	-	-	-
장흥	정남진전망대(2011) 등 5개	628억2425만1000원	19억3526만9000원	13억2971만1000원	-6억555만8000원
강진	다산기념관(2014) 2016년부터 유료화	90억원	1억4378만원	-	-1억4378만원
해남	공룡화석지(2007) 등 3개	589억7300만원	15억8159만5000원	3억8756만7000원	-11억9402만8000원
영암	해당 시설 없다고 공개함	-	-	-	-
무안	무안생태갯벌센터(2008)	197억원	3억7426만6000원	1억3030만7000원	-2억4395만9000원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2014) 등 2개	215억8100만원	7억3813만2000원	2억7274만1000원	-4억6539만1000원
영광	노을전시관(2009) 등 3개	449억1900만원	12억8517만8000원	7억5867만7000원	-5억2650만1000원
장성	홍길동테마파크(2014)	314억원	4억3199만7000원	1억1188만4000원	-3억1989만3000원
완도	장보고기념관(2008) 등 2개	512억4400만원	35억3700만원	7570만원	-34억6130만원
진도	진도타워(2013) 등 5개	353억원	5억7064만9000원	4525만1000원	-5억2539만8000원
신안	증도신안갯벌센터(2006) 등 4개	261억6700만원	2억5465만1000원	1억1100만원	-1억4365만1000원
계		5462억2925만1000원	305억377만5000원	135억2040만5200원	169억8336만9800원

입장료(성인 기준) 1000원을 받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단체관광객은 할인혜택을 주면서 1년 입장수익은 운영비의 1~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시·군이 캠핑장, 전망대 등 중복·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거액을 쏟아붓고, 방문객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입장무료나 할인 등의 시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 가중으로 신규 투자도 멈추면서 시설 노후화, 콘텐츠 미흡 등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익원이 없고 운영비를 시·군이 부담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입장객이 증가할수록 적자폭만 동반상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6개 시설 가운데 입장이 무료인 18개 시설의 1년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특권폐지 방안 착수" "견제기능 포기할 수 없어"

여야 면책특권 놓고 확연한 입장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면책특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면책특권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면책특권은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며 "허위사실 폭로, 갑질도 국회 개혁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면책특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당 소속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을 잘못 폭로한 것을 언급한 뒤,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安·千 본회의장 환한 웃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채용 이어 허위 폭로
더민주 잇단 악재 골머리
김종인·우상호 대응은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소속인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에 이어 조응천 의원의 '허위 폭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악재가 이어지자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내부 의원들을 상대로 더 이상의 과오가 없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권 내려놓기에 있어서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는 등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의 대응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김 대표는 더민주 내부 반성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실수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을 손보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격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우선, 김 대표는 이날 서 의원 징계논의를 위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5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